

지역 소식 통

정읍시, 축산물 취급 업소
집중 위생 점검 나서

정읍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안전 확보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지역 내 축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위생 점검에 나서며 안전한 식탁을 약속했다.

시는 축산물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설 명절을 대비해 오는 24일까지 지역 내 축산물 제조·유통·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최근 1년 사이 부적합 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점검 주요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냉동축산물을 냉장축산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축산물 및 영업장의 위생 적합 여부 △보존·유통 기준 및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관련 법령 위반이 적발된 영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부적합 제품은 즉각 회수·폐기 조치할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농업인 지원 강화
공익직불금 129억 지급

설 명절을 앞두고 정읍시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나선다. 총 129억원 규모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으로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시는 기본형 공익 직불금을 당초 109억원에서 20억원을 증액한 총 129억 원 규모로 상향해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농업·농촌을 지키는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지급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둔 농가 약 1만 3450여 명으로 13일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109억원은 1월 중 지급 완료될 예정이며, 쌀값 하락과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추가로 20억원의 시비 직불금이 5월에 지급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설 명절 종합대책 수립 철저”

권익현 부안군수, 간부회의서 강조… 성과 중심 용역 추진 · 결과 활용 주문

권익현 부안군수가 설 명절 종합대책 수립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권익현 군수는 13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정부가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30일 설 연휴까지 6일은 쉴 수 있게 됐다”며 “연휴가 길어진 만큼 군민과 귀성객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재난·재해관리, 교통대책, 환경정비 등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권익현 군수는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세심한 관심



을 가져 온기 있는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설 명절 종합대책을 꼼꼼하게 수립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명절을 맞아 부안을 방문하는

귀향객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팸플릿 등을 마련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권익현 군수는 “올해 업무가 시작되면서 각 사업별 용역이 추진되고 있다”며 “용역은 사업 성공의 초석을 다지는 과정인 만큼 사업 추진을 위해 구체적 실행계획과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형식적이고 편의주의적인 용역에서 벗어나 군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결과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한파 대비 철저 당부… “시민 안전 최우선”

이학수 정읍시장, 간부회의서 “취약가구의 안부 확인 · 화재 철저히 예방할 것” 등

정읍시가 한파와 폭설 대비를 강화하며 취약계층 등 시민 안전 보호에 나섰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13일 열린 영상 간부회의에서 독거노인 등 한파 취약가구의 안부 확인과 화재 예방, 농업 시설물 방해 방지 등을 지시하며 한파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독거노인 등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방문 및 전화로 안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난방기기 사용에 따



른 화재 사고를 철저히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농작물과 시설하우스 등 농업 시설물의 방해 방지 대책을 빈틈없이 강구할 것을 지시하고 폭설에 대비한 시설장비 점검도 철저히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학수 시장은 “한파와 폭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며 “취약계층 등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세심하고 철저한 대응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청렴도 1등급 자긍심 높인다”

심덕섭 고창군수, 신규이장단과 함께 청렴의지 표명

고창군 각 마을에서 활동하는 574명의 신규 이장들이 반부패 청렴을 다짐했다.

13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고창문화회 전당에서 ‘신규이장단 청렴

서약식’을 열었다. 서약식에는 올해 신규 이장으로 선출된 574명이 참여했다. 고창군 이장단 연합회는 고창군수와 함께 지역사회 내 청렴문화 확산과 반부패 노력을



위한 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낭독한 뒤 고창군에 전달했다.

또한 △부패예방 △부당이익 추구 금지 △청렴의 가치 공유 및 실천 등 지역사회 모두가 청렴한 고창군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특히 ‘전북 유일 2024년 종합청렴도 1등급’에 빛나는 성과를 공유했다. 앞서 민선 8기 고창군은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고창 실현’을 목표로 심덕섭 군수를 중심으로 강력한 청렴 실천 의지를 표명한 뒤 청렴 시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반부패 청렴 정책 수립 후 이를 충실히 이행해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2024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평가 1등급을 달성한 만큼 앞으로도 청렴도 유지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청렴한 고창을 만들기 위해서 민관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공수의 8명 위촉… 가축 질병 예방 총력

정읍시가 가축 질병 예방과 방역 강화를 위해 2공수의사 8명을 위촉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시는 지난 10일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렘피스킨(IRD) 등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가축방역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 내 개업 수의사 8명을 ‘2025년 정읍시 공수의’로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공수의들은 향후 1년간 정읍 전 지역을 담당 구역별로 나눠 △가축 사육 농가 진료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브루셀라·결핵병 혈청검사 채혈 △가축전염병 예방 업무 등 다양한 방역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특별방역대책 기간에는 가축 질병별 감수성 동물에 대한 순회 예방과 전염병 발생 신고 접수 및 1차 확인 업무를 맡는다. 가축 질병 발생 시에는 현장에 신속히 동원돼 방역대 내 농가 시료 채취 등 정밀 예방 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이날 공수의회에서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200만원을 정읍시민장학재단에 기탁하며 지역사회 기여에도 동참했다.

이학수 시장은 “고가축전염병 발생 빈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공수의사 위촉·운용을 통해 적극적인 순회 예방활동으로 축산농가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며 “앞으로도 가축 질병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농기센터, 폭설 · 한파 대응 전직원 일제출장

고창군이 폭설과 한파에 따라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전직원 일제출장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창 지역은 지난 6~10일 평균 25cm(최고 성내면 35.5cm)의 누적 적설을 기록, 시설하우스, 축사, 인삼재가림 시설 등의 피해 우려가 큰 상황이다.

고창군농업기술센터는 농업시설물 및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농업인 대상피해 예방 SMS 발송 △겨울철 시설피해 예방 현장 지도 △농업기상재해 대응 조기경보서비스 가입 확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홍보 등 겨울철 재해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대설로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

인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농업인학습단체 및 품목별연구모임 등 단체 카톡방을 활용하여 기상정보와 피해예방 대비를 홍보했다.

대설 이후 피해 상황 점검을 위해 10~14일 전직원 읍면 현지 출장을 실시하여 피해상황 점검과 농업시설물 및 농작물 피해 예방지도를 실시한다.

현행별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고창군은 서해안 지역에 위치해 있어 매년 많은 눈이 오는 지역인 만큼 농업시설물 및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대응에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시정 참여유도 ‘청년 참여포인트 제도’ 시행

정읍시가 청년들의 시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청년 참여포인트 제도’를 운영한다.

‘청년 참여포인트 제도’는 정읍시에 거주하는 18~45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이 시정 활동에 참여하면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지역화폐로 환산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시정 관심도와 지역 정착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 활동에는 △SNS를 통한 시정 홍보 △시 주관 행사 및 교육 참여 △관광지 방문 등이 있으며 1회당 최소 1000포인트에서 최대 1만포인트가 적립된다. 적립된 포인트는 매월 1회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가입 희망자는 최초 1회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신청서를 시청 일자리경제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시정참여를 증빙하는 적립신청서를 활동 당일 말까지 동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올해부터 추천인 포인트 부여 항목을 추가하고 기존 항목별 지급 금액을 상향 조정해 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청년 참여포인트 제도 시행으로 청년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참여 기회를 통해 지역 정착 만족도가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